

노동 존중이 없는 환경, 과로와 세제 독성으로 쓰러지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보는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직업병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서 주인공 노무진의 어머니가 대학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결국 동료 한 명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그려진다. 비록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우리 사회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직업병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글 공주영



©imbc.com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단체 포스터

#01 드라마 속 갑질? 아직까지 현실인 노동환경

노무진의 어머니 양은자는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면서 청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교양 시험을 강제로 치르도록 요구받는다. 이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를 모욕하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시험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해고 위협을 받는 장면까지 나온다.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 날은 교양 있는 모습을 위해 정장과 구두 착용을 강요했다. 이런 압박으로 시험 준비를 하던 청소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 사건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진의 도움으로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시험 철폐와 해고 노동자 복지, 근무 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며 일으킨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 과정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2021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청소노동자가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필기시험을 강요받고, 근무 시간 외 고강도 노동을 지속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또한 같은 학교는 2019년, 에어컨이나 창문도 없는 곰팡이 냄새 나는 열악한 휴게실에서 60대 청소노동자가 휴식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노동자가 인력 총원이나 샤워실 설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 학교 측이 “집회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노동자를 고소한 사건도 2022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02 과로가 쌓이는 청소 업무, 심은 어디로

지난 10월에도 과로를 호소해온 시청 소속 50대 청소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사망 이틀 전, 시청 앞 집회에 참여해 인력 총원을 요구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입사 당일, 추운 날씨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재활용 쓰레기 업무에 투입됐다가 3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2025년 1월, 이 노동자의 사망은 ‘돌발

04:52 / 25:12

■

▲



©imbc.com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5회 캡처화면

과로'로 인한 산재로 인정됐다. 추운 환경에서 중량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점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정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 가운데 청소·경비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 업무는 장시간 허리를 숙이거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 무거운 장비 운반 등이 많아 허리디스크·어깨 통증·손목터널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또한 과도한 노동 강도와 업무 스트레스, 고용 불안은 심장마비·뇌출혈 같은 중증의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 이처럼 노동 강도는 높지만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쉴 공간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서울시가 25개 구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5곳 중 8곳은 청소 후 몸을 씻을 샤워실은 물론 화장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7곳 중에서도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돼 휴게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03 화학세제리는 '독' 안에서 갇힌 청소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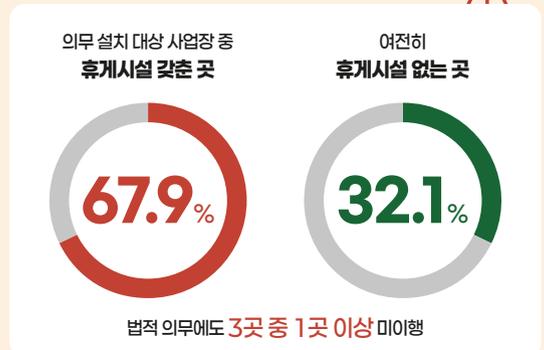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일상 공간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청소세제 역시 위험한 노동환경에 속한다. 청소노동자가 주로 사용하는 세제는 주로 다목적 고농축 세정제, 락스, 화장실 세제 등인데,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가정용 세제보다 독성이

훨씬 강하다. 특히 다목적 고농축 세정제는 강알칼리성 또는 강산성 성분을 포함해 호흡기 점막에 직접적인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급성 기도 자극, 기관지염, 천식 악화, 폐 손상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피부 단백질을 녹여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고, 눈에 튀면 각막 손상이나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농도 계면활성제는 피부 보호 장벽을 파괴해 접촉성 피부염이나 습진을 유발하기도 한다.

혹한의 추위나 강렬한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작업도 위험하지만, 제대로 된 창문이나 환풍기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세제의 독성을 최소화하려면 보호마스크, 고글,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지만, 현장에서는 보호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해물질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노동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그 청결을 만드는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성 또한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조사



출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조사'(2024), 6-7.